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8월 30일(주일) 제1063호



오이타 현지에서 한국인 자매들이 러브소나타를 홍보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 모집

4주 동안 안내데스크, 홈페이지, 목회지원실에서 접수
23번째 러브소나타 60일 앞으로 ... 10월 28~29일 막 올라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를 모집한다. 러브소나타서울본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빙고 본관 로비에 설치된 안내데스크나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빙고를 제외한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일본에서 23번째로 올라 퍼지는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60일 앞으로 다

가왔다.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오이타 이치코그란시어터에서 막 오른다. 10월 28일에는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전야집회), 10월 29일에는 리더십포럼 한일교류만찬회(CEO포럼)와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내일의 희망’을 주제로 오이타 시민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예정이다. 배재철(테너), 김영미(소프라노), 온누리장로합창단, 이슬기(가야금

연주자), 심수봉(가수), 송술나무(플루트 연주자), 박진아 작곡(샌드메이네이션)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오이타에서는 현지 실행위원 교회를 중심으로 사전세미나 ‘일대일 리더아카데미’를 개최했고, 두 차례에 걸쳐 실행원회도 개최했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리더십 새벽기도회 시작

9월 7~26일 ... 캠퍼스별 새벽예배 시간

리더십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9월 7일(월)부터 26일(토)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리더십 새벽기도회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고, 다가올 30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장(場)이 될 전망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교회창립 30주년

을 맞이하며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미래의 준비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리더십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리더십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시간은 캠퍼스별 새벽예배 시간과 동일하다. 말씀은 이재훈 담임목사가 선포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리더십(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락방장, 순장, 총무, 사역팀장 등)들은 필히 참석을 요한다.

회복축제 ‘The 기쁨’ 열흘 앞으로

9월 9일 막 올라 ... 8월 31일까지 사전등록

2015 회복축제 ‘The 기쁨’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복축제는 ‘성숙을 위한 기쁨’을 주제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올해 회복축제에서는 30년 임상 경력의 심리학 박사 집 외일다, 31

년 경력의 중독전문가 에드 코리 목사, 4만 시간 임상 경험이 있는 정신과 전문의 칼 레이먼이 강의한다. 회복축제 ‘The 기쁨’은 ‘기쁨의 회복축제’와 ‘임마누엘 테라피’로 나뉘어 오전부터 저녁까지 강의와 세미나가 이어진

다.〈관련기사 2면〉사전 등록은 8월 31일까지(개인 5만원, 단체 10인 이상 5만원)다. 9월 1일부터 8일까지는 회비가 7만 원이다.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910004-30205(온누리교회 회복축제) 문의: 02-3215-3355, 570-7522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이주민 위한 추석연합집회 봉사자 모집

9월 26~28일,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

온누리M미션에서 개최하는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5’ 봉사자를 모집한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된다. ‘Build Up’을 주제로 열리는 추석연합집회에서는 4번의 메인 예배와 국

제 문화 축제, Adventure, 나라별 음식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치트 전도사, 유세르게이 목사, 테벤 드라 목사, 김창욱 전도사가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문의: 양옥진 사역자 010-3387-3327

/ 정현주 기자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앞두고
회복사역본부장 이기원 목사와 함께



2015 회복축제 ‘The 기쁨’은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치유와 회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과연 어떤 강의와 세미나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회복사역본부장 이기원 목사는 “이번 회복축제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픔을 털어내고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기원 목사와의 일문일답.

—2015 회복 축제 ‘The 기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번 회복축제는 ‘기쁨’이 주제입니다. 기존의 회복축제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 아픔을 돌아보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번 회복축제 ‘The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회복축제 ‘The 기쁨’만의 특징입니다.”

—치유와 회복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옵니다.

“짐 와일더는 30년 이상 뇌를 연구하고, 신학과 심리학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이나 영성 프로그램으로는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랜 시간 치유와 회복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것입니다.

에드 코리 목사는 30년 동안 중독과 외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국제 약물 남용과 중독연합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 세계로 강연을 다니는 분입니다.

칼 레이먼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이번

회복축제에서 진행될 예정인 ‘임마누엘 테라피’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를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회복 축제 참가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회복축제는 단 한 번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5 회복축제 ‘The 기쁨’을 통해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도폭발훈련학교 10주년

3천 명 수료, 3만 명 전도, 결신을 60%

“전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전도폭발 훈련입니다.”

이원섭 성도가 전도폭발의 밤 행사 영상에서 간증한 내용이다. 지난 24일 오후 6시, 온누리교회 전도폭발훈련학교가 10주년을 맞아 ‘전도폭발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전도폭발 수료자들이 참석했다.

전도폭발훈련은 올해까지 3천 명이 수료했다. 전도폭발훈련학교 수료생들은 지금까지 약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비율은 60% 가까이 된다.

이태열 피택장로(전도폭발훈련학교 전 팀장)는 “한국의 복음화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도폭발훈련학교가 윤희유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도폭발훈련 10주년 행사 ‘전도폭발의 밤’

전도폭발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대상자들을 찾아가 친교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는 일 년에 두 차례 전도폭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도폭발훈련 주간반은 9월1일~12월 16일까지, 야간

반은 9월2일~12월 9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2층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7만원.

문의 : 주간 김태리 (010-7900-3908)
야간 김숙경 (010-2231-6357)
/ 김미림 기자(mirim@onnuri.org)

2015 서빙고 온누리교회 찬양팀원 모집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일정 (공동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및 세례교인)	문의
1부(06:50)	주찬양	주일 오전 5:20~6:30 월요일 저녁 7:30	시간: 9월 6일(주일) 오전 8시15분 장소: 지하 1층 식당 곡목: 찬송가 중 자유곡 1곡 (악보지참)	노혁준 총무 010-8736-7311
	챔버	주일 오전 6시	항시 모집 파트: 현악기 전체, 오보에 조간: 전공자나 유경험자	손 수 팀장 010-3124-2970
2부(09:00)	주사랑	주일 오전 7:20~8:40 목요일 저녁 7:30~9:30	곡목: 자유곡 1곡 및 면접(악보지참) 시간: 9월 10일(목) 오후 7시(성가대연습실) 9월 13일(주) 오전 10시30분(비전홀) 두 개 날짜 중 원하는 시간 선택가능 * 3주간의 연습 기간 있음	정의석 총무 010-3100-5765
	챔버	주일 오전 8:00 챔버연습	항시 모집: 현악기 전체조간: 전공자	이철호 팀장 010-2942-7399
3부(11:30)	챔버	주일 오전 9:30 기도모임 주일 오전10:00 챔버연습	항시 모집 분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팀파니 조간: 전공자	하웅주 팀장 010-8818-7798 안혜준 총무 010-4717-4691
4부(13:50)	온누리워십	주일 오전11:30~13:00 수요일 저녁8:00	장소: 성가대 연습실 시간: 9월 6일(주일) 오후 3시30분 곡목: 여자- 부르신 곳에서, 남자- 주 여호와와 광대하시도다 연령제한: 20~40대	이승연 총무 010-5350-2872

2016년 상반기 결혼예배 예약

9월 19일 오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9월 19일 ‘2016년 상반기 결혼예배’ 순서를 추천한다. 서빙고와 양재 모두 반드시 오후 6시까지 참석해야한다. 예비 신랑신부 혹은 양가 부모 중 한 명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면 참가 가능하다. 예약금 50만원과 교인확인증명서를 지참해야한다. 예비 신랑신부가 모두 온누리교회 성도일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한 명만 온누리교회 성도일 때는 해당

성도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타 교회 성도의 소속교회 교인확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부모가 온누리교회 성도면서 예비신랑신부가 타 교회 교인일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연락처와 예비 신랑신부가 다니는 교회의 ‘소속교회 교인확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문의 서빙고: 홍수정(02-3215-3179)
양재: 안수정(02-3215-3178)

온누리 장로중보기도회 개최

9월 3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두란노홀

온누리 장로중보기도회가 개최된다. 9월 3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온누리 장로중보기도회는 ‘오직 기도(막 9:29)’를 주제로 진행된다. 교회창립 30주년을 즈음하여 온누리교회 모든 장로들이 모여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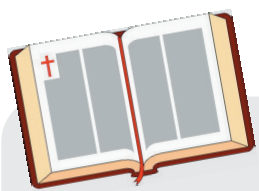
이번 기도회에서는 리더십들 먼저 영성회복과 화해를 통회하는 기도,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온누리교회와 협력기관을 위한 기도, 세계선교와 세계교회를 위한 기도, 차세대와 거룩한 일터를 위한 기도, 사회선교 활성화를 위한 기도 등을 할 예정이다.

예배인도팀 컨퍼런스

2015 온누리 예배인도팀 컨퍼런스가 9월 5일(토) 오전 10시 서빙고 경천홀에서 열린다. 차세대, 대학청년부, 성인예배 인도팀이 대상이다. 온누리 예배인도팀 컨퍼런스는 국내 10개 캠퍼스 예배 인도팀이 한 자리에 모여 비전을 공유하고 교제하는 장(場)이다. 컨퍼런스에서는 오전에는 집회, 오후에는 밴드와 싱어 파트로 나누어 세미나를 연다. 중식과 선물이 제공된다.

5차 선교사 파송식

오늘 서빙고 1부, 양재 3부 예배에서 2015년 5차 선교사 파송식이 열린다. 여디다야(단기)-남아시아H국, 최소망(단기)-남아시아H국, 권사론(갈렙)-동아시아B국, 나문채(갈렙)-일본, 이순중, 김은혜(갈렙)-중동A국, 보아서로이(선문인자비랑)-남아시아N국, 아굴라, 브리스길라(선문인자비랑)-남아시아N국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승리의 확신

요한일서 5:1~5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체험을 하십시오.”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은 바로 알고, 자신이 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를 알고 자신이 아는바를 확실히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안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안다’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약속합니다.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는 말씀은 확신에 속한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세 가지 확신을 차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확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이밖에 사죄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도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체험

오늘 본문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4~5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정한 교리에 동의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교리에 동의하고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약 2:19).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리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입니까.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1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4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께서 나오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체험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인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먼저인지를 두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심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두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DNA를 보면 두 개의 선이 나선형구조로 되어 있어 서로 하나를 이루가는 것처럼 인간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에 ‘믿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현재시제입니다. 1절 중반부에는 ‘낳다’라는 시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완료시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심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믿음 가운데 나아오도록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는 역사를 행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롬 10:17).

세상에 속한 인생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남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실하게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믿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성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요 1:12-13).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배고픔의 욕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눈을 가졌기에 보는 것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가졌기에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출생을 통해 이 세상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 역사 속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새로운 생명을 삽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지, 우리가 새 생명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인 새 생명이 있는지,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체험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먼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한참 후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후에 도달하는 지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듯이 우리 안에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믿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 됩니다.

하나님의 DNA ‘사랑, 순종, 승리’

존 스토틀 목사는 알파벳 ‘ABCD’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됨을 설명했습니다.

A는 ‘Admit’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B는 ‘Believe’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C는 ‘Consider’입니다. 위탁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D는 ‘Do’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영혼들에게 나타난 영적 체험입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지체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DNA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2절).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난 사람은 사랑이라는 본성을 갖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자기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요일 4:7-8절).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사랑에서 순종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런 것이 아닙니다”(3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감정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을 낳습니다. 사랑하면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사랑은 어떤 수고와 헌신도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랑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요 14:21).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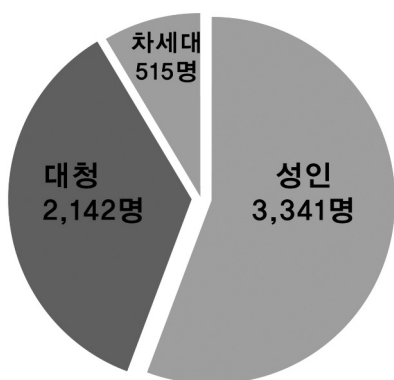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4절).

(1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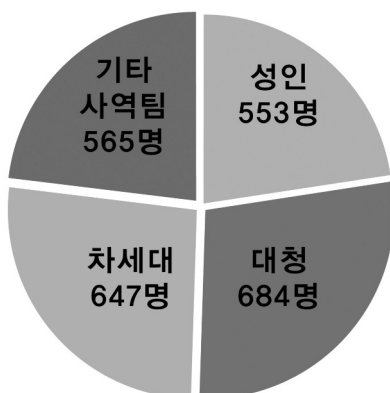
2015 여름 아웃리치 결산

국내 188개 팀 5,998명, 해외 186개 팀 2,449명 참가
국내 충청도, 해외 동남아시아 ... 최근 3년 아웃리치 인원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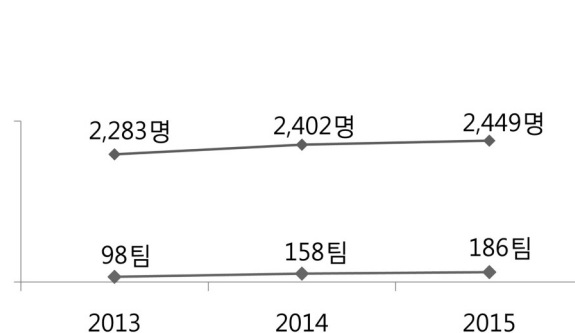
국내 아웃리치 참가인원



해외 아웃리치 참가인원



최근 3년간 해외 아웃리치 변동 추이



2015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마무리됐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 188개 팀 5,998명, 해외 30개국(102개 지역) 186개 팀 2,449명이 참가했다. 국내 아웃리치는 충청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다. 35개 팀이 충청도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어 경상도 34개 팀, 강원도 32개 팀, 경기도와 전라도가 각각 29개 팀 순이었다. 해외 아웃리치는 단연 아시아가 대세였다. 해외 아웃리치팀 92%가 아시아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가 64%로 으뜸이었다. 몽골,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가 28%로 그 다음이었다. 유라시아(4팀), 아프리카와 중남미(각 3팀)로도 다녀왔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는 해가 갈수록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해외 아웃리치를 떠난 인원이 증가했다. 2013년 98개 팀 2,283명, 2014년 158개 팀 2,402명, 2015년 186개 팀 2,449명이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 정현주, 김현준, 김미림 기자



목회칼럼 서재범 목사(브릿지공동체)

열방을 품고 잊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올 여름 아웃리치를 4번이나 다녀왔다. 해외 2번(몽골, 베트남), 국내 2번(경남 산청, 전북 정읍) 다녀왔는데 지역도, 특색도 다양한 곳이었다. 그 중에서 몽골 아웃리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몽골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팠다. 내가 밟은 땅은 환경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이었다.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초원이 펼쳐진 곳이지만 개발이 한창이라 공해가 심했다. 선교사님은 우리가 방문한 7-8월에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셨다.

몽골 국민 대다수는 갈탄을 연료로 쓴다. 갈탄은 석탄의 한 종류로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우리와 함께 한 선교사님이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담배를 왜 이리 많이 피셨어요?”라고 했다고 한다. 선교지에서 겪는 고충이 이렇게 다양했다.

몽골 아웃리치 의료 현장은 참담했다. 천명 가까이 환자들이 물려들었고, 자신의 치료약이 아닌데도 약을 가져가는 사람, 혈압이 200이상으로 상승한 대다수의 환자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선교사님을 보며 또 한번 울었다.

베트남 아웃리치에서는 현지인들을 섬기는 ‘문화의 밤’을 만들었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도를 하며 문화의 밤에 초청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즐겼다. 아웃리치 팀원들과 비전을 나누고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가장 큰 도움은 공감대였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비전을 나누고, 교제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공감임을 깨달았다. 잊지 못할 체험이었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는 흠어진 나그네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 아와 아시아의 비두니아 지역에 흠어져 사는 나그네”(행전 1:1).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오는 것이 아웃리치다. 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섬기고 돌아오는 것이 아웃리치다. 나는 기억날 때마다 아웃리치 다녀온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다녀온 선교지, 미지립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아웃리치를 떠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떠난다.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떠난다. 아웃리치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돌아왔다면 소중히 품고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아웃리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야 한다.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그대여, 열방을 품고 잊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복음 들고 산 넘고 바다 건너 아웃리치를 다녀온 성도들에게 2000선교, 대학청년부, 차세대 본부장이 격려메시지를 보내왔다.



김홍주 목사
(2000선교 본부장)

2000선교

여름 아웃리치에 다녀온 모든 성도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웃리치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가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힘든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

하고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웃리치의 가장 큰 효과이자 강점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여름 아웃리치의 현장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선교현장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을 때 선교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방을 품고 돌아온 성도들의 개인적 영성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연합하는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는 필수적입니다.

올해 아웃리치는 안전관리의 새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웃리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국내 아웃리치의 경우 졸음운전, 접촉사고, 물놀이 사고 예방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외 아웃리치는 무엇보다 사고 없이 잘 다녀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0선교본부는 '현지 중심 협약제'를 꾸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2000선교본부에 연락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

이제는 선교지 위해 기도할 때

했습니다. 'swim서버'에 실시간 보고망을 구축해 사역 예정, 사역 중, 사역 완료된 지역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웃리치에 참석한 팀별, 국가별, 지역별 통계 자료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웃리치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녀온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녀온 선교지의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드리고 있는 목요선교집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집회는 선교지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선교지에서 보고, 느끼고, 품은 것들이 일상 속에 묻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열방을 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부 본부장)

대학청년부

올 여름 국내외 아웃리치에서 수고한 청년들 모두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흘린 눈물과 헌신은 지역 교회를 회복시키고, 농어촌교회에 힘을 주었고, 선교지를 변화시켰습니다.

대학청년부의 한 공동체는 경북 문경에 있는 미지림교회를 7년 동안 도왔습니다. 문경은 불교 색채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무려 7년 동안이나 방문해 결국 변화시켰습니다. 지역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교회 수도를 끌기도 하고, 다른 종교인이 가득한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무시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온

누리교회 청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찾아가 섬겼습니다. 그 덕분에 지역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팀 방문이 마을의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마을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복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아웃리치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웃리치는 영적 책임입니다.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지방의 작은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이 대도시로 나와 대형교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가는 이유는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온누리교회는 한국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주신 영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 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웃리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웃리치를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전국 어느 교회든 수련회를 합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는 아웃리치를 갑니다. 떠나는 교회입니다. 아웃리치는 청년들에게 매우 귀한 영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웃리치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주고 오는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은사도 발견하고, 인생의 올바른 비전을 설정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인생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아웃리치입니다. 선교사적 삶을 경험하는 장(場)이 바로 아웃리치입니다.

셋째, 아웃리치는 청년 선교 자원을 발굴합니다. 아웃리치는 1년에 1회, 1주일 정도 떠납니다.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FA(Frontier Agency) 단기선교사로 자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청년의 헌신이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는 귀한 자원으로 쓰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웃리치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청년들에게 아웃리치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



노희태 목사
(차세대 본부장)

차세대

올해 차세대 여름 아웃리치에는 1,000여 명이 넘게 참가했습니다. 모두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 해야 할 것들을 멈추고 어딘가로 떠났다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아웃리치에 참가해준 차세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세대 아웃리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청소년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 기회인 아웃리치는 차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차세대 아웃리치는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웃리치를 통해 차세대들은 타국과 다른 지역 또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

라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차세대 캠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면 아웃리치는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차세대에게 효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효용성은 개개인의 주관적 선호도를 의미합니다.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기려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기 위해 실력을 키우거나 성적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스스로가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효용성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본인이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효용성이라 지칭합니다.

효용성이 발동하는 시점은 자율성이 주어질 때입니다. 자율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 효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가고, 스스로 선택해서 사역을 하는 등의 자율성이 주어지면 아이들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비전도 발견하고, 자율성도 회복하고

그래서 수련회보다 아웃리치가 더 큰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자율성의 열매는 성인이 되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추억과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특별한 아웃리치팀이 있어 소개합니다. 서빙고 중등2부는 매우 귀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중학생 9명과 교사 7명이 몽골로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2박3일 동안 현지 청소년들과의 연합 캠프를 했습니다. 연합 캠프 저녁 집회에서 현지 청소년들과 온누리교회 청소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기도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간증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모습에 놀라고 감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아웃리치는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율성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합니다.

묵은 때 벗기고, 새 생명 불어 넣고

양재 농어촌선교팀, 울릉도를 가다

눈을 들면 반짝반짝 빛나는 눈부신 바다가 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화산암으로 이뤄진 기암괴석이 보인다. 짙은 에메랄드빛을 뽐내는 바다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다. 여기는 신비의 섬 울릉도다.

양재 농어촌선교팀이 울릉도 학포교회를 방문했다. 잡초도 뽑고, 시멘트도 새로 바르고, 교회 시설을 보수했다. 울릉도 주민들을 만나 전도도 했다. 농어촌선교팀원들의 활약이 보석보다 빛났다. 땀과 흙먼지로 더러워진 셔츠, 허리 한번 펴 새 없이 이어진 작업에 펄쩍한 엉덩이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모습보다 멋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교회 나오세요”라고 노래하는 목소리는 그 어떤 악기소리보다 아름다웠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지난 8월 21일(금) 새벽 3시 30분, 여기는 영등포역 신세계 백화점 앞. 울릉도행 셔틀버스에 몸을 실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길을 달리길 네 시간여 동해 묵호항에 도착했다. 여기서 울릉도행 여객선을 탄다.

묵호항에 도착하니 빗줄기가 더 거세졌다. 혹시 울릉도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이틀 전 울릉도에 들어가려던 사람들이 거센 파도로 인해 묵호항으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참이었기 때문에 더 불안했다. 멀미약을 든든히 챙겨 먹고 승선했다. 배를 타고 세 시간여를 달려 울릉도에 도착했다.

울릉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신비의 섬이다. 진주 같은 섬이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었다. 햇빛이 반사된 바닷물은 어찌나 찬란하던지 눈이 부셨다. 해안선을 따라 이룬 기암괴석에 부딪힌 바닷물은 짙은 에메랄드빛을 띠고 있었다.

울릉도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가 깊은 곳이다. 1909년 영국 성서공회 소속 매서인(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성경책을 파는 사람) 김병두가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이 작은 섬에 100년이 넘는 교회가 무려 4개나 된다. 울릉도의 복음화율은 30~35%를 자랑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울릉도 기독교지만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 타종교 및 각종 사이비, 이단 종파들의 침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울릉도의 대표적 관광지 나리분지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세간을 떠들썩하

게 했던 구원과 계열 사업체가 들어서 있고 이웃종교들도 노인요양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준공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자가 양재 농어촌선교팀을 만난 곳은 기암괴석 절벽 위에 서있는 듯 위태로운 학포교회였다. 정재욱 목사와 임신빈 팀장을 위시해 총 11명의 팀원들이 이미 울릉도에 와 있었다. 그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학포교회의 묵은 때를 벗기고, 새 생명을 불어 넣고 있었다.

손과 발은 교회를 쓸고,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

학포교회는 세워진지 51년이 넘는 오래된 교회다. 목사님 가족만 쓸쓸히 예배드리고 있었다. 무성한 잡초가 교회와 사택을 뒤덮고 있고, 예배당 한편에 딸린 작은 부엌은 언제 썼는지 모를 만큼 낡아있었다. 온갖 잡동사니가 나뭇굴고 쥐똥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학포교회 이재중 목사는 5년 전 울릉도에 들어왔다. 울릉도 주민이 되어 학포교회를 섬기고 싶어 주저 없이 울릉도행을 선택했다. 이 목사가 학포교회에 왔을 때 성도는 한 명도 없었다. 전(前)담임목사와 성도간의 불화로 모두 교회를 떠난 상태였다.

이 목사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한 번 등을 돌린 교인들은 좀처럼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이 목사가 용기를 냈다.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나날이 황폐해져 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처음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



교회 보수 작업.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있다.

팀의 전화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도움을 주러 오겠다고 하고선 오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온누리교회는 진짜 와 주셨어요. 탐방이나 관광이 아니라 순전히 교회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양재 농어촌선교팀은 전도팀(김신자 권사, 이미자 권사, 이수란 권사, 송진숙 권사), 교회보수팀(정재욱 목사, 임신빈 팀장, 서광열 총무, 방찬중 피택장로, 조옥배 디락방장), 섬김팀(황선경 집사, 양오순 집사)으로 나뉘어 11명이 이곳에 왔다. 농어촌선교팀원은 아니지만 조옥배 디락방장, 송진숙 권사, 이수란 권사(만나교회)도 동행했다.

“평균연령이 60대인 팀이에요. 제가 제일 젊어요.”

정재욱 목사가 이 특별한 팀을 소개했다. ‘청년들이 하면 더 좋은 사역일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바뀐다. 노장들은 일당백이었다.

학포교회는 예배당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인들의 발길이 끊어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양재 농어촌선교팀은 교회와 사택 재정비에 집중했다. 우선 잡초부터 제거했다. 뽑아도 뽑아도 줄어들지 않는 잡초 앞에서 팀원들은 무릎 꿇지 않았다. 잡초보다 더 악착같았다. 교회 벽 밑에서 발견한 커다란 개미집도 들어내고 땅을 골랐다.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바르기를 여러 차례 했다.

팀원들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 무더위와 흙먼지,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림에도 작업은 계속됐다. 기자도 잡초 뽑는 일에 동참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다리가 저리고 숨이 턱 막혔다. 생각보다 힘든 작업에 시계만 쳐다보는 기지를 이미자 권사가 놀려댔다. “잡초는 뜯지 말고 뽑아야지요. 더도 말고 심분만 해봐.”

고작 몇 분 일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농어촌선교팀원들은 누구하나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창피하고 미안하고, 농어촌선교팀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전도팀 소속 권사들은 온갖 잡동사니가 나뭇굴고 쥐똥 냄새가 코를 찌르는 예배당 안과 부엌을

청소했다. 걸레질을 몇 번 했는지 모른다. 이수란 권사가 걸레질을 하다가 말고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손과 발은 교회를 쓸고 닦고, 매만지고,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작은 부흥회가 펼쳐졌다.

현 집사님, 다시 교회 갑시다!

전도팀에게 특명이 떨어졌다. 현순자, 최석근 집사를 교회로 인도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목사의 부탁을 받은 것. 현 집사 부부는 교회에 발길을 끊은 성도 중 한 명이다. 현 집사의 집을 찾아갔다. 전도팀 소속 권사들의 눈빛이 비장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 목사님이 하도 현 집사님 칭찬을 많이 하셔서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안면을 트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자 권사들의 눈빛이 더 반짝였다.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였기 때문이다. 덩석 현 집사의 손을 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교회에 안 나오는 집사님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무심하게 아파하세요. 집사님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와 함께 교회 갑시다.”

진심과 간곡함이 배어있는 권유에 현 집사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다. 이번 주일에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였다.

드디어 약속한 주일이 왔다. 이게 웬일인가. 현 집사가 우리보다 먼저 교회에 와 있었다. 이 목사가 가족 6명만 드리던 주일예배에 양재 농어촌선교팀과 현 집사가 함께 했다. 이 목사가 학포교회에 오고 나서 가장 많은 인원이 드린 주일예배였다.

서울로 되돌아오는 길에 학포교회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전기세가 부담돼 한 번도 켜지 않은 교회 십자가 불을 다시 켜겠습니다. 등대와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양재 농어촌선교팀 02-570-7349

울릉도 학포교회.

남양주 온누리교회

전남 신안 안좌사랑교회



주은숙 성도

남양주 온누리교회 도농다락방 네 명의 성도들이 지난 5월 신안 안좌도를 찾았다. 안좌도에 가기 전 무릎 꿇고 우리가 찾아갈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바로 안좌사랑교회다. 우리는 그곳으로 여름 아웃리치를 가기로 했다.

전남 신안 안좌사랑교회가 있는 마을은 약 80여 명의 지역주민이 사는 곳이다. 5월에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는 안좌사랑교회 목사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 마을의 전도대상자 명단을 받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 40명의 팀원들은 폭염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품었다.

우리는 전도팀, 의료팀, 대체의학팀, 양육팀, 이마용팀으로 나뉘어 팀 별로 준비된 사역을 시작했다. 교인들을 포함해 만지 않는 마을 주민들이 속속 교회로 모여들었다. 의료팀에서 준비한 영양제 주사와 이마용팀의 컷과 파마 서비스가 인기 많았다. 어르신들이 영양제 주사를 맞는 동안 전도팀원들이 다가가 얼굴에 팩을 붙여 드리

며 복음을 전했다. 놀랍게도 복음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분이 없었다. 어떤 분은 몇 번씩이나 듣는 전도 메시지를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셨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기도가 통한 것 같다. 전도팀의 메시지를 듣고 주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다. 우리가 더 고마운데...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안좌사랑교회가 위치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웃마을에서는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다. 영양제 주사와 각종 이마용 도구를 들고 직접 이웃마을을 찾아갔다. 영양제를 나눠 드리고, 파마를 하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놀랍게도 7명 중 5명이 결신을 했다. 그 중 3명은 주일예배에 참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6명의 어르신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어르신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다. 작은 예배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안좌사랑교회 목사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매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박운현 목사님이 '돌아온 탕자'라는 설교를 했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는 어르신들임에도 졸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셨다. 정말 어렵게 전도했던 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마을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버지 한 분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단혀 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다고 약속하셨다. 눈물을 흘리며 큰아들을 잃은 아픔을 고백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목사님과 팀원들이 축복과 위로의 기도를 해 드렸다. 안좌사랑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시기를 그날 예배에 어르신들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이라고 하셨다.

현지교회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에 하나

남께서 우리를 그곳에 천사로 보내셨다. 섬에서 사역하느라 힘들고 외로운 안좌사랑교회와 목사님 내외분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라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안좌사랑교회 목사님과 마을 어르신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안좌도를 떠났다.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 어르신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계속 교회에 잘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다.

갈렘공동체

전북 고창 아웃리치



김은미 순장 (새가족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 우리 아웃리치팀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자였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화요성령집회 등을 참석해 예배하고 기도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간 곳은 고창 무장중앙교회다. 윤석산 목사님이 불편한 몸으로 헌신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3박4일 동안 목우마을 주민들을 전도했다. 목우마을은 도시로 나가있는 자녀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부모들이 새벽 6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곳이다. 그분들께 교회 가지 않는 이유를 여쭙봤다. 다들 바쁘게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여유롭게 교회에 가면 이웃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정귀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중

풍으로 몇 년을 누워 계시다가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거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 곁에는 농사일뿐만 아니라 살림까지 책임지고 있는 한 정삼할아버지가 계셨다. 하루도 잠시도 쉬지 않는 할아버지에게 다짜고짜 사영리를 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됐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도와 농사일과 집안 청소를 했다. 방 안에 쥐 분비물과 비누벌레 알들이 있었다. 싱크대 찬장에 있는 그릇들과 집기들은 전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다. 냉장고의 음식들은 참으려 해도 바로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청소했다. 청소하면서 더러운 죄가 씻기는 것처럼 후련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청소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조해졌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청소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셨다. 할아버지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아무 대가없이, 땀 흘리면서 즐겁게 돕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말이다.

다음날 아침, 주일이었다. 우리는 그분들을 주일예배에 모셔오기 위해 택으로 다시 갔다. 일하는 시간에 와서 교회 가자고 하는 우리에게 역정을 내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 오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교회에 안 가신다고 하시던 할머니는 할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셨다. 세수를 하고 깨끗한 신발

바로 한 영혼 때문이었다



고창 무장중앙교회 윤석산 목사님 내외분의 발을 씻기고 축복하고 있다.

로 바뀌 신고, 더 튼튼한 지팡이로 바뀌 젊으셨다.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교회에 가시려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울컥했다. 설교 중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마을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 바로 한 영혼 때문이었다.

아웃리치 가기 전 하용조 목사님 추도예배 때 들은 말씀이 기억난다.

“병들고 때 묻고 냄새나는 섬길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교회의 본질은 한 영혼이다. 세상이 다

버렸던 죄인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는 교회가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전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고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내 주변의 병들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내가 바로 교회임을 잊지 않고 내 삶을 통해 전도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높여 드린다. 할렐루야, 아멘!

서초D공동체

동아시아 A국 아웃리치



김명진 성도
(서초D공동체)

“이번 아웃리치는 하나님께 가라고 하셔서 다녀왔다. 그곳에 있는 동안 힘들었지만 그곳 친구들이 불쌍하게 사는 것이 안타까웠다. 우리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타국 아이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왔다. 내게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이겨내고 잘 참아냈다. 아웃리치를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 지훈이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성공적인 것이 분명하다.

내게 아웃리치는 용어는 생소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온 지 3년 정도밖에 안된 평범한 성도다. 순장님을 통해 처음으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그동안 아웃리치를 바라보던 내 시각은 제자의 시선이었다. 아웃리치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7살 된 외아들 지훈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훈이를 데리고 동아시아 A국 아웃리치에 다녀오라고 하셨다.

의아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담당 총무님이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그 덕분에 지훈이와 함께 아웃리

치를 갈수 있었다.

서초D공동체의 이번 아웃리치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공동체는 젊은 공동체다. 30명의 팀원이 이번 아웃리치에 함께 했다. 그중에 15명이 어린이거나 청소년이었다.

서초D공동체는 양성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원들 모두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솔선수범했다. 우리 지훈이는 아웃리치 팀원 중에서 가장 막내였다. 팀원들은 지훈이를 친자식, 친손자처럼 챙겼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아웃리치 출발전 팀원으로서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방관했던 내 모습과 아들을 데려간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신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담당했다. 현지 아이들에게 풍선과 사탕을 나눠주며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했다.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던 한 아이가 친구를 데려왔다. “친구와 함께 복음을 들으러 왔어요”라며 나에게 미소를 보였다. 총기 있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어쩌나 사랑스럽던지 잊지 않았다.

척박한 땅에서 일평생 한신한 선교사님들도 매우 귀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 나는 선교사님들 모습을 보고 빛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 땅의 흔적을 살아가라



어린이 사역으로 페이스 페인팅하는 모습.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선교지를 사랑으로 품은 선교사님 부부의 모습은 내게 큰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들의 모습은 내게 숙연함으로 다가왔다.

드러운 초원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양성된 목사님께서 “이 땅의 흔적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하셨다. 그렇다. 아웃리치는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흔적을 가슴 깊이 새겨 일상 속에서 사역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받은 도전이 굉장하다. 선교사님의 자녀가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지에 와보니 저도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난 아이들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라고 간증했다. 그 간증을 듣고 눈시울을 적셨다.

마지막날, 우리 아들 지훈이가 “내년에도 하나님이 아웃리치를 가라고 하시면 당연히 가야지.”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이번 아웃리치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에게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다. 서초D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노원공동체

거제도 유호교회 아웃리치



김종섭 집사
(노원공동체)

노원공동체는 해마다 소속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지로 달려간다. 노원공동체 아웃리치는 해외 다섯 지역 중 한 곳과 국내 지역을 선정해 진행한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 아웃리치만 진행했다. 마침 국 선교사님 부부와 일정이 맞아 동행했다.

8월 7일 금요일 오전 7시 하계역 앞 편도 6시간이 상 걸리는 긴 여행이 시작됐다. 버스 두 대에 몸을 실은 80여 명의 팀원들이 기도로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버스 안에서 먹은 간식과 휴게소에서 먹은 간단한 식사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다.

이번 아웃리치의 주제는 ‘힐링이 있는 행복’으로의 초대였다. 거제도 주민들의 몸과 마음에 힐링을 선물하는 것이 이번 아웃리치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 거제도에 다다르자 깨끗하고 조용한 어촌 마을 풍경 자체가 또 하나의 힐링이었다.

첫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두 개 팀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팀은 의사와 간호사들로 구성된 영양주사팀이었고 또 한 팀은 한의사로 구성된 한방팀이었다.

우리는 거제 유호교회와 이웃 마을에 있는 구영교회에서 영양주사, 침, 건강 상담 교실을 만들어 사역을 이어갔다. 지역 어르신들은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찾아오기도 했고 전도팀을 통해 오신 분들도 있었다.

“멀리 서울에서 와서 무료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한 어르신도 있었다. 영양주사를 맞고 있는 어르신들의 머리맡에서 소곤소곤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의 역할도 매우 컸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한 할아버지가 계셨다. 그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에 우리팀은 환호했다.

더위가 한창일 때도 아랑곳하지 않은 도배팀의 수고가 계속됐다. 마을에서 가장 낙후된 두 가정을 선정해 습기가 차 쌓여버린 벽지를 뜯어내고 갈라진 벽 틈 사이로 초배지를 발랐다. 대부분 도배 경험이 없는 팀원들이 해내기에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번 봉사를 위해 도배사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한 이영근 장로님은 천장 도배를 도맡아 하셨다.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을 몸소 보여주셨다.

마을 청소팀의 활약도 대단했다. 독거노인이 사는 집안을 청소하며 봉사를 쉬지 않았다. 해안가와 마을 길바닥도 청소했다.

하늘나라를 맛보고 돌아왔다



영양주사를 맞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

폭염주의보가 계속된 가운데 팔빙수를 만들어 배달 서비스를 마다하지 않았던 주방팀의 역할도 특별했다. 그들은 무더위를 식혀준 장본인들이다. 새 힘을 불어넣어 준 에너지원이었다. 백 명분의 식기를 설거지하면서도 행복이 떠나지 않았던 주방팀은 가장 영광스러운 얼굴이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말 그대로 힐링이 있는 행복으로의 초대였다. 우리 모두는 땀 흘리고 봉사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떠나기 전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들렀다. 그곳은 625 한국전쟁 당시 17만 명의 전쟁 포로들을 수용한 곳이다. 60여 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포로들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곳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남겨주었다.

그렇게 2박3일 동안 80명이 함께한 여름 아웃리치가 끝났다. 우리는 이번 여름 거제도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돌아왔다.

SNS공동체

제주도 아웃리치

전수영 자매
(SNS공동체)

제주도의 매력에 이끌려 아웃리치 참가 신청을 했다. 기대도 기도도 없이 아웃리치 모임에 참석했다. 아웃리치 모임에 참석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어느새 제주도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는 고백도 타져 나왔다. '제주도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설렘이 가득해졌다.

우리가 제주도에 도착한 날은 73년만의 폭염으로 체감온도가 40도를 넘었다. 더위에 지쳐 짜증을 낼만한 날씨였다. 그런데 덥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무더위가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도 없었다.

우리는 '제주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과 연합해 제주대학교 안에 'P4U CAFE'를 만들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 준비했다. 방학이고 너무 더운 날씨에 학교에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지 염려가 되었다.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 속에 불신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구름기둥을 보내주셨다. 그 구름기둥 아래 'P4U CAFE'에는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학생들이 가득 찼다. 저녁에는 바오젠 거리로 물티슈를 들고 전도를 나갔다. 평소에는 특별한 생각 없이 지나다니던 유흥업소 앞에 섰다. 막상 전도를 하러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떨렸다. 함께 하는 지체들과 업소 앞에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물티슈를 들고 유흥업소에 들어갔다.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다. 유흥업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내가 보였다.

'P4U CAFE'와 바오젠거리 전도가 끝나고 지체들과 나눔을 했다. P4U CAFE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대학생들에 대해 나누었다. 바오젠 거리와 유흥업소에서 전도하면서 영적으로 공격 받은 것이 있는지, 느낀 것은 무엇인지도 나눴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 아웃리치 출발 전부터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아웃리치가 시작된 순간에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두려움도 있었다. 왜 유흥가까지 전도를 하러 가야 하는지 의문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주도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주도에 큰 열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제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나를 왜 보내신 것일까. 아웃리치 가기 첫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다.

"네가 알고 있는 사랑이란 무엇이나?"

아웃리치 중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다.

나를 제주도로 보내신 이유



제주대학교에서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제주에 보내신 이유였다.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응답을 들은 것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구름 기둥을 만났고, 지체들 간에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예배와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도 느꼈다.

제주 땅에서 만났던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

하게 되었다. 이전과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삶이 예배가 되고자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제주도 아웃리치는 내 삶의 역전의 순간이었다. 뜨거웠던 날씨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또 감사하게 되었다. 나를 제주에 보내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강공동체

꿈사랑부와 함께한 아웃리치

문지호 성도
(한강공동체 충성2순)

한강공동체는 장애아동 부서인 '꿈사랑부' 여름 캠프 도우미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나는 장애아동을 알대일로 맡는 일이 어렵게 느껴져 '찬양, 섬김, 헌신' 칸에 체크하고 참가 신청서를 냈다. 아웃리치 떠나기 바로 전 교사가 부족해 나는 아이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야 했다. 결국 알대일 도우미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내가 맡은 아이의 낮이 약했다. 내가 일하는 병원에 환자로 오는 아이였다. 내가 겪을 부담을 없게 하려고 수년전부터 하나님께 비하신 만남이었다. '믿음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웠다. 장애가 있는 연합회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겨낼 것임을 선포했다. 영혼의 장애가 있는 연합회를 살리는 말씀이기도 했다.

워터파크 탈의실에서의 진풍경을 잊을 수 없다. 잠시 옷을 꺼내거나 수영복을 정리하는 사이 옆 칸으로 제 멋대로 옮겨다니는 아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함께했던 집사님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제 멋대로 뛰어가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듣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찌르는 고백이었다. 함께 있는 것이 익숙해진 아이 몇 명이 내 옆에 와서 팔도 잡아주고, 알아듣기 힘든 말이지만 활짝 웃으며 말도 건네주었다. 우리가 특으로 울동을 할 때는 앉지만 있었던 아이가 불편한 몸을 일으켜 함께 찬양하였다. 처음 아웃리치 회의 때 장애아동은 낮가림이 심해 섬김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내게 두 가지를 알게 하셨다.

첫 번째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는 말씀 속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 꿈사랑부 어린이들은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연합함 중에 도우미를 온전히 의지하고, 작은 일에 크게 기뻐한다. 활체에서 내려와 물에 떠있을 때 지던 그만한 웃음을 잊지 못한다.

두 번째는 지체가 이뤄가는 교회의 모습이다. 나와 달리 가까이 알대일 도우미가 되기로 결정했던 강촌공동체 지체들과 개인봉사자 지체들, 장애 아동들에게 최고의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오신 권사님들, 비오는 중에 바비큐를 굽겠다고 천막을 옮겨가며 불을 지펴주신 집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도와 물놀이를 하고 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세상에 사는 절대 겪지 않을 불편을 기쁘게 선택한 지체들을 보며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을 이뤄가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지난 캠프가 있던 날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하나님은 시원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알대일 도우미로 발탁된 사람들을 수영장 물속에 넣어 시원함을 누리게 하셨다. 이튿날 대책 없이 내

리던 폭우를 식사 직전에 거두셔서 선선한 비바람 속에 최고의 바비큐 파티를 즐기게 하셨다. 각 지체들이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아이들과 더불어 천국을 꿈꾸게 하셨다. 캠프 마지막 날 저녁 말씀이 적힌 기념품을 받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 25:21).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미주CGNTV 개국10주년 축하음악회.



중남미 위성신학교.

미주 CGNTV의 역할과 사명,

커뮤니티 협력 허브, 중남미 선교 전략기지

미주 CGNTV는 기독교 콘텐츠가 풍부한 북미 지역과, 교육과 문화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가톨릭 신자가 90% 이상을 차지해 참된 복음이 절실한 중남미 지역을 모두 품고 있다. 특히 중남미는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선교지’라는 말이 돌 정도로 거리, 비용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선교사를 잘 파송하지 않는 곳이다. 미주 지역은 한국 교포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는 모국어로 된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 수요를 높이고 있다. CGNTV가 서을 본사를 개국한지 5개월 만인 2005년 8월 1A에 미주 CGNTV를 설립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3년 6월에는 미 동부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뉴욕지사도 설립했다.

중남미 선교 교두보로서의 정체성 확인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미주 CGNTV 개국 10주년 관련 행사들은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다민족·다문화 커뮤니티와의 협력 외연을 확대하고 중남미 선교의 교두보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를 위해 ‘232 트리오3’ 명의 연세를 합산한 것으로 ‘232세’로 불리는 CGNTV 리더십(유재건 대표이사, 정상건 운영위원장, 배종수 실행위원장)이 출동하고 ‘향수’라는 곡으로 클래식과 대중가요의 융합 장르를 개척한 ‘박인수 서울대 명예교수와 음악친구들’이 축하공연으로 함께 했다. 나성영락교회(김경진 목사)와 얼바인온누리교회(권혁빈 목사)에서의 14, 15일 양일간 공연에는 연인원 1,6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14일 남가주에서만 8.15 광복절 행사가 일곱 군데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800여명의 성도들이 나성영락교회를 찾아 공연을 관람하고 미주 CGNTV 개국 10주년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CGNTV의 강점인 네트워크 기능이 단연 돋보였다. 1A와 오렌지카운티의 대표적 한인교회인 나성영락교회와 뱀앨한인교회(김한요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담임목사들과의 미팅이 각각 이뤄진 것 이들 목회자는 CGNTV 리더십의 방문을 환대했을 뿐 아니라 선교다큐 ‘블랙마운틴’ 등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우수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CGNTV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기홍 목사는 “미주 CGNTV의 자문을 받아 다음 학기부터 미국 정규대학과정인 그레이스미션대(GMU) 수업 동영상은 스페인어 등으로 자막 처리 또는 다방화기로 했다”며 “GMU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선교지가 있다면 CGNTV가 브릿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나성영락교회는 3일간 행사 장소 및 자원봉사자들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13일에는 미주 CGNTV 10주년 개국 감사예배가, 14일에는 미주 CGNTV 자문위원 및 후원회 운영위원 위촉식이 이어졌다. 또 15일에는 CGNTV 대표 유재건 장로의 새벽기도회 메시지 선포와 교회 리더십 조찬모임이 각각 이뤄졌다. 김경진 목사는 “CGNTV가 가장 효율적인 미디어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CGNTV와 더욱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미주 CGNTV는 2009년부터 자체적인 후원회가 결성돼 약 3,500여 명이 후원해왔다. 현재 1,000여 명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주와 중남미를 위한 2개의 위성비용을 책임지고 있다. CGNTV의 7개 해외지사 및 제작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현지에서 모인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10주년 행사를 통해 강준민(새생명비전교회), 진유철(나성순복음교회), 박성근(1A 한인침례교회), 박광철(조이헬로침교회) 목사 등 남가주의 대표적 목회자 20여 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마셜이넷워드 대표, 장해규 기독교산업회 회장, 모나카권 재외한인간호회 이사장 등 15명은 후원회 운영위원이 됐다. 향후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은 미주 CGNTV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보다 역동적으로 북미와 중남미를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번 10주년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13일에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임혜빈 회장)와 MOU를 체결한 점이다. 이날 남가주의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중남미 출신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십이 참석해 KCCD를 매개로 해 CGNTV와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14일 자문위원 및 후원회 운영위원 위촉식에는 영감 미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해 “CGNTV가 미주 한인과 미국 커뮤니티

간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기독교적 가치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크리스천 정치인으로서 CGNTV와 동역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주 CGNTV는 초창기부터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현지인에 적합하고 교포 사회에 필요한 영적 콘텐츠들을 제작해온 것 또한 미국 내 차세대들을 주목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가하면 차세대들을 위한 설교자가 없는 미자립교회들을 위해 별도로 영어 DVD를 제작, 배포해왔다. 미주 CGNTV는 한국 채널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방송하고 있다. 본방을 48%로, 113여 개의 아이템과 매월 500여 편을 제작, 방송한다. 언어별 프로그램 현황은 한국어 84%, 영어 12%, 스페인어 3% 순. 한인 커뮤니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미주 한인교회 말씀강해와 10분 메시지, 칼럼, 한인 리더십의 간증 프로그램 등도 제작한다.

미주 CGNTV는 미주 내 다양한 TV 채널들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진행했다. 글로벌 비전 내 북미 IPTV(2006년), IPTV PNTV(2007년), 남가주 디지털 공중과 CH184, 뉴욕 뉴저지 지역 디지털 공중과 CH633, 남가주 타임워너, 폭스 케이블(2009년), IPTV & TV(2011년) 등을 통해 CGNTV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된 것. 위성의 경우 2014년 1월 ‘Galaxy-19’를 새롭게 론칭해 가시청권을 미주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다른 위성 Hispasat-1E는 중남미를 커버 하고 있다. 방송 시스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Full HD 중계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도 갖추고 있다.

가장 유용한 중남미 선교 톨 제공

이번 미주 CGNTV 개국 행사의 꽃은 가장 유용한 중남미 선교 톨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중남미 선교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중남미가 복음화율이 높지만 민족종교와 혼합돼있거나 이단들이 파상공세를 펴고 있음에도 교회들이 넘쳐 있다. 정령송배에 사로잡혀있는 원주민들도 적지 않다.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아 산간벽지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재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미주 CGNTV는 ‘신학교=

건물’이 아닌 ‘신학교=콘텐츠’라는 새 도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과테말라,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나카라과, 볼리비아, 파라과이, 칠레 등 8개국 22명의 한인선교사들과 연합으로 이뤄진 월드비전신학교(WVS)에 위성신학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CGNTV는 한인교회와 선교사, 현지 크리스천 사이의 협력을 이끌어낸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2013년 스페인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 목회자의 85%가 신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다. 95% 이상이 성경 일독도 하지 못한 채 목회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스페인어로 된 ‘WVS-미주 CGNTV’의 위성신학강좌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8개국에서 102개 캠퍼스를 통해 1,000명이 2년 과정의 정규 신학강좌를 수료했다. 현재 1,497명이 재학 중이다. 특히 과테말라의 경우 교도소에서 위성신학강좌가 정식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과테말라 정부는 WVS에 자국 내 22개 교도소에서 위성신학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김성남 선교사가 WVS 교도소 사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WVS부총장인 김선근 선교사는 “교도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지만 김성남 선교사가 엄격한 학사와 인성관리를 통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정의 교육기간을 끝냈다고 졸업장을 주면 지탄의 대상이 될 사역을 양산하는 꼴이 된다”며 “이 때문에 현지 정부가 WVS 모델을 인정하고 모든 교도소에서 이 과정을 해달라고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선근 선교사는 “하늘을 향해 열려만 있으면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발전기를 활용해 신학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며 “세계 최초로 과테말라 교도소에 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은 CGNTV가 위성방송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온누리교회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중남미는 말씀강해 한 편이 소중해요. 신앙 강좌 한 편을 듣지 못해 기갈을 겪고 있죠. 어린이 찬양 한 곡이 제대로 없어 아이들의 정서가 매마르고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인적자원과 양질의 콘텐츠를 영적 기근상태인 중남미에 아낌없이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 함태경 CGNTV 경영본부장

제1063호 | 2015년 8월 30일(주일)

■ 정경렬 간사님을 칭찬합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
그 어떤 기도보다

/ 홍애경 성도(성동광진공동체)

얼마 전, 순식구들과 함께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작은 버스를 타고 양지 온누리교회에 다녀왔다. 우리가 탄 버스는 9시에 출발해서 양재 온누리교회를 거쳐 양지 온누리교회로 가는 버스였다. 그날은 아침부터 정말 더운 날이었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 있는 작은 버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생각했던 것보다 버스가 작았기 때문이다.

우리 순식구들은 버스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버스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9시, 이 버스를 운전할 간사님이 오셨다. 잠깐 기도하고 출발하겠다고 하셨다.

“여시 교회차는 기도하고 출발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런데... 나는 그 간사님의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다.

그 간사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코스를 운전 하신다고 했다. 매일 바뀌는 승객들에게 특별한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버스에 탄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다. 정말 신실한 기도였다.

기도를 마친 간사님이 쑥스러워하면서 잠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다. 이미 목이 메어 있었다.

서빙고에서 양재를 거쳐 양지까지 가는 온누리교회 버스를 운전한지 5년 되었는데 금요일에 버스가 성도들로 꽉 차서 출발한 적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셨다. 5년 전에는 빈차로 떠날 때도 많

았다고 했다. 혼자 양지로 가면서 울며 기도한 적도 있다고 하셨다.

“하나님, 이 버스를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세요. 빈차로 보내실 거면 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나요? 이 버스에 성도들이 꼭 차서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오늘 응답되었다고 하셨다.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성도들로 꽉 차서 출발하러니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셨다.

나는 그 간사님의 기도와 짧은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원에 가서 받을 은혜를 이미 다 받은 기분이었다. 어떤 말씀보다, 어떤 기도보다 훌륭했던 기도와 간증이였다. 어찌 보면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것이 느껴졌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 25:23).

차에서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간사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라고 말했더니 그 간사님이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셨다. 집에 오면서 그 간사님을 위해 기도했다.

“저 역시 그 간사님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요. 오늘도 그 간사님을 통해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사랑해요, 주님.”

■ 내적치유학교 수료 간증

이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 김선경(가명)(48기 내적치유학교)

9살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이후 어린 동생 두 명과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살며 새엄마를 구했다. 아이가 셋이나 있던 30대 초반의 새엄마는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다. 잦은 부부싸움과 욕설이 난무했다.

부모님은 집에서는 매일같이 싸웠지만 아무 일 없이 교회에 다녔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심한 분노를 느끼고 점차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렇게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보냈다. 남동생의 빈번한 가출과 탈선이 반복됐다. 나는 남동생을 감싸주는 케네 부모님을 닮아갔다. 남동생에게 폭력과 욕설을 퍼부었다. “너는 우리집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동생을 저주했다.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남동생은 폭력과 욕설로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의 폭력에 내가 물들고, 동생도 물들었다.

2년 전 남동생이 자살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입술이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장에는 운구를 들어줄 친구도 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책했다. 이 모든 책임이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은 굳어져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주일예배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내 신앙은 늘 제자리였다. 내 마음속에는 늘 분노와 화가 가득했다. 언제 폭발할지 몰랐다. 그 화살은 남편과 아이들에게 향했다. 딸은 남편에게 평평 울며 “아빠, 엄마가 무서워요, 새엄마 같아요”라며 하소연했다. 그럴 때마다 “난 지극히 평범한 엄마”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막연한 마음으로 내적치유학교에 등록했다. 첫날 강의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 용서 편지를 쓸 때는 차마 펜을 들 수 없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내 안에 있는 어릴 적 상처가 나를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내가 만약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고통이 없어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 주님께 울부짖었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비로소 참 평안이 찾아왔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부모님께 이제 한 걸음 다가가려 한다. 아직 나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이단에 빠져 헤매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부정하는 아버지가 바로 그 숙제다. 부모님은 내게 가장 큰 십자가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 전도폭발훈련학교 간증

사람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 정충호 성도(양재 전도폭발훈련 3기)

나는 양재 전도폭발훈련학교를 섬기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 이모의 전도로 주일학교에 다녔다. 나는 교회만 다니는 성도였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었다. 결혼을 하고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이 어려워졌다.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정당하게 되었다.

지친 마음을 돌 곳 없이 떠돌던 나는 한권의 책을 읽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 책은 바로 김사무엘 선교사의 자서전 <왕의 초대>다.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마음이 합해졌다.

사업 실패로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한 첫날, 처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려운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질을 축복해주시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질의 축복보다 너의 영혼구원이 먼저 아니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면이 울렸다.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되었다. 나는 그동안 교회 강단에서,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로 부터 ‘영혼구원’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 처음으로 그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다. 영혼구원을 위해 수개월을 성경읽기와 CGNTV에서 나오는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이 기간을 통해 나를 향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다. 영생을 선물 받았다.

그때부터 내 삶은 전도훈련 장소로 변하기 시작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고 싶었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생과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던 중 양재 전도폭발훈련 3기에 지원하게 됐다.

훈련 1단계, 매주 시간을 정해 훈련자와 함께 회사의 전 직원, 친척,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당시 사업적 어려움과 엄청난 세금이 추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전도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수 있었다. 감당할 수 없던 세금 추정 금액 중 일부를 기적적으로 탕감 받게 됐다. 물론 나의 과오로 인한 탈세였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철저히 갚아나갔다.

복음을 깨달은 나는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전도폭발을 통해 고객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다. 고객을 사업수단이 아닌 사람으로 섬겨야 하는 이웃으로 바라보게 됐다. 지금 나는 바른 사람으로 거듭났다. ‘사람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라는 슬로건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고 있다.

■ 한편의 시



어리석은 나

/ 배종선 순장(시인)

시간이라는 포승줄에
손과 허리 뽕뽕 묶여
남대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대양의 자유함을 주신
당신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거처는 남대천의 험로를 역류하는 연어

욕망이라는 사슬에
모가지를 묶아매어
세상이라는 레일 위를 달려가는 전차
내려놓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당신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브레이크 없는 전차

당신이 주신 말씀 속에서 줄타기하고
사랑이라는 커다란 선물도 덩석 받지 못한 채
당신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었다는 교만의 무덤 속에
오늘도 미로를 헤매고 있는 처량한 미물

어리석은 나



장로칼럼 송일섭 장로

전도폭발의 밤을 마치며

6월에 ‘전도폭발의 밤’ 행사를 열기로 했다. 그 행사를 8월 24일에 다시 열었다. 이번 행사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인내로 준비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보냈다. 전도폭발 훈련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전도폭발의 밤 10주년 행사는 정말 뜻 깊었다. 각 처소에서 10여 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했던 참이었다. 전도폭발훈련학교 수료생들과의 만남은 그동안 전도현장에서 소외받고 상처 받았던 훈련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위로받고, 회복 되는 도전의 자리였다.

“전도는 크리스천이 해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아니요, 전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후회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용조 목사가 전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과연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기에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한 영혼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걸까. 이번 전도폭발의 밤 행사는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전도폭발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도우심을 맛보게 해주는 훈련이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 친교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역할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요 목표다. 나 역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대가를 치렀는지 회개하

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전도폭발의 밤 행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참석자들을 뒤덮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했다.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여름밤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행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일어나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추수 때에 회하여 가는 밭의 열매를 추수하는 일꾼들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도를 하고보니, 내 삶이 바뀌었다.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달려갈 것이다.”

전도폭발 수료생들의 간증 영상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봤다. 전도폭발 훈련생들은 지금도 방방곡곡 각자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 두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한다.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영혼을 구하는 사역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2015년 3월 1일, 이재훈 목사는 복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하려면 나 자신이 복음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다보면 내 자신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도는 할 수밖에 없다. 복음의 축복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여러분은 전도훈련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권사칼럼 장정순 권사(서초D공동체)

이 어인 은혜일까?

지난해 말 서초D공동체가 세워졌다. 서초D공동체는 45세 미만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남편인 구재영 장로가 지도자로 임명되면서 우리 부부는 함께 서초D공동체를 섬기게 됐다. 서초D공동체는 지난 3월 첫 예배를 드렸다. 나는 젊은 부부들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선교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 바쁘다.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 그 바쁜 와중에 공동체와 순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해보인다. 순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퇴근 후에 할레벌떡 달려오는 직장인들과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쪼를 물리며 예배드리러는 지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공동체가 세워진 지 넉 달이 지나고 첫 아웃리치를 갔다. 동아시아 A국과 포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멋진 사역을 감당했다. 온 가족들이 여가를 위해 쓸 수 있는 여름휴가를 아웃리치로 대신했다. 해외 아웃리치는 전문의, 간호사, 약사의 헌신으로 은혜가 넘쳤다.

나는 자격증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미용선교를 감당했다. 20여 명의 현지인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나니 보람과 감사가 흘러 넘쳤다. 다른 곳에서도 여러 모양의 섬김과 어린이 사역이 이어졌다. 결눈질할 틈 없이 바쁜 여정을 소화했다. 선교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을 만끽했다.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작은 붉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 십자가는 선교지를 구원하기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형상과도 같았다. 우리가 방문한

지역의 선교사님은 15년을 그 땅에서 헌신한 분이다. 그 선교사님의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아이들의 간증도 특별했다. 아이들은 가난한 자들의 생활을 몸소 경험하고, 감사와 자족의 삶을 배웠다. 7살과 9살 된 어린이가 “내년에도 꼭 아웃리치를 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알 것 같아요. 이곳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라고 고백했다.

해외 아웃리치는 다음세대와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이었다. 섬김과 봉사가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였다.

포항 아웃리치는 서울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 진행했다. 아웃리치에 참가한 지체들의 열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였다. 주일 봉사를 위해 늦은 밤 서울로 출발한 지체도 있었다. 친교의 밤에는 가족별로 준비한 다양한 순서들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가족들의 화합과 믿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

두 차례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다. “나는 원가지 되신 예수님께 붙은 포도나무 가지가 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아시아 A국에서 흘린 눈물과 포항에서 본 가족들의 하모니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포항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석양을 두른 무지개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무지개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니 이 어인 은혜일까!”



신앙에세이 김현실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

“이사하고 적응 잘하고 있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된 아이에게 이렇게 묻은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그 아이는 내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먼저 인사하기로 결심했어요”라고 대답했다. 낯선 곳에서 빨리 적응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요즘 세상에 어린이가 어찌면 저렇게 대담할까? 용기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인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안 된다. 많은 경우 인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든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섭섭해 한다.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인사는 첫인상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유지시켜준다.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인사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누가 먼저 인사할 것인지를 재는 것이다. 신학교에서 배운 많은 것 중에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수업 중

에 원로 목사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목회 나가면, 인사 잘하라. 전도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먼저 웃으며 인사하라. 인사를 잘해야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사람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목회인데, 인사를 잘하는 것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었다.

온누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난다. 말씀에 은혜 받고 본당을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다. 건물도 크고, 사람은 많고, 사무실은 어디 있는지, 식당에서 밥은 어떻게 먹는 것인지 몰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당황했었다.

‘여기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다. 그때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다. 그분을 통해 교회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역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나의 낯선 교회 생활은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시작되었다.

온누리교회는 변화와 성숙 속에서 창조적으로 사역하고, 도전하며 맑은 사역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있는 목회 현장이다. 사역을 새롭게 할 때마다 정들었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힘들고, 사역에 적응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설렌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땅을 보며 걸으면 내가 서 있는 땅이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새로운 사역이 너무 힘들고 두려워 소리 높여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내가 적응하고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친절한 인도하심 덕분이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덕분이다. 나는 그 동역자들과 이렇게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 한풀 꺾였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졌다. 이제 공동체가 개강을 하고 순예배가 시작된다. 새로운 가족들도 들어오게 될 것이다.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서 반갑게 맞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게 하고 아름답게 지속시켜주는 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다”(롬 16:15)고 말씀하신다. 작지만 회복의 시작이고, 큰 사랑의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승리의 확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힘이 강해져서 세상의 질서 위에 군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주관적 믿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과 같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4절의 시제를 보면 과거 시제이고 5절은 현재 시제입니다. 왜 시제를 구분했을까요 ‘세상을 이김’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연결시키면 과거에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요 16:33).

예수님이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자체로는 세상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는 승리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고지에 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승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승리한 모습일 뿐입니다. 승리일 수도 있고 승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된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얼마나 체험하느냐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승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과 순종과 승리는 영적인 논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요소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내려놓는 것이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

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히 11:36-38).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어떠한 유혹과 순교할 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믿음을 너무나 쉽게 포기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에 휩쓸리고 유행에 따라 살고 시대의 관습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라고 질문했더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지면 인기가 떨어질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 안의 그리스도가 점점 온전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실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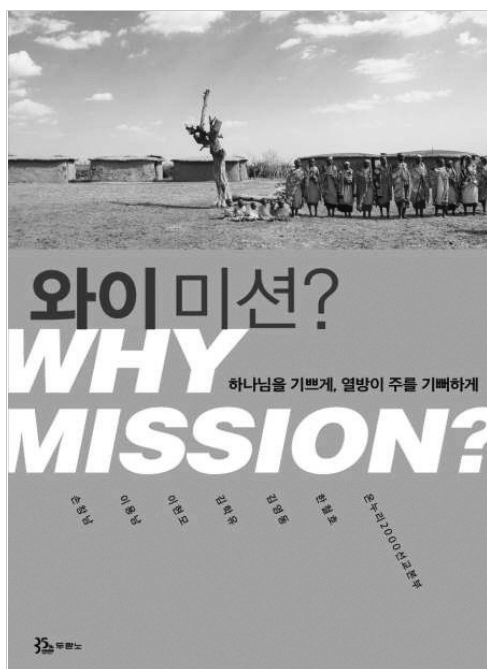
쉽게 읽을 수 있는 선교 입문서

〈Why Mission?〉

온누리2000선교본부, 한철호, 김영동 외 4인 저 | 두란노 | 10,000원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온누리교회는 2000선교본부를 세우고 선교에 모든 역량을 모아 왔다. 지금까지 72개국에 1,76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841명의 선교사가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그 바탕에는 2002년부터 평신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교기초훈련 프로그램 ‘Why Mission?’ 이 있다.

지금까지 약 6,000명의 성도가 ‘Why Mission?’ 과정을 수료했다. 이번에 출판된 〈Why Mission?〉은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평신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선교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왜 우리가 세계를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도 해준다.



행복한 가정 가꾸는 ‘기도’

〈부부축복기도문〉

한기채, 장동숙 저 | 토기장이 | 11,000원

저자 한기채 목사는 목회의 기본은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목회자가 가정을 잘 세우지 못하면 교회도 올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태아축복기도문〉, 〈자녀축복기도문〉, 〈부부축복기도문〉도 집필했다.

저자는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야말로 부부 사이의 최고의 사랑의 언어라고 강조한다. 또한 기도는 배우자의 영혼에 힘을 주는 격려이자, 최상의 선물이며, 봉사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 있는 모든 기도문은 열린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자신들의 기도를 덧붙이면 된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열심히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이 저희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문 중)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 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 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 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 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두란노홀

금요 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 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 (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 (010-3301-2897)

장애우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 (010-5358-3648)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전도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청년자적장애우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최성훈 목사(010-8820-9191)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과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2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 예배 14:3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를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본관 B102호

문의: 김기행 집사(010-8627-2098)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차세대 수요 어머니 기도모임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15

장소: 서빙고 누리홀/양재 화평홀/도곡
온유희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도곡 02)570-7553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들은행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서빙고

여성사역 교회큐티방

월요나눔방 9/7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화요나눔방 9/1개강 10시-12시30분, 드림홀

수요나눔방 9/2개강 1시-3시, 신관203호

목요나눔방 9/3개강 1시-3시, 신관203호

금요나눔방 9/4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문의: 여성사역(02-3215-3247)

59회 성령수련회

일시: 9월 19일(토)~20일(주일)

장소: 예담원(경기 양주시) 모집인원: 60명

회비: 4만원(하나은행 573-910005-39805

예금주 성령수련회) 입금 후 전화요망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구 등

문의: 서빙고(황보은선 권사 011-1720-5221), 양재(김현옥 집사 010-8955-3610)

서빙고 한글학교 중학생반 교사 모집

(2명)

자격: 온누리 등록교인, 일대일 수료자

매 주일: 1시~2시 20분 수업

매 주일: 2시 30분~3시30분 교사 모임

문의: 이승희 선생님(018-229-2822)

샘물중고등학교 교사초빙

초빙과목: 역사 또는 역사 및 공통사회

처우: 기간제, 국공립학교 수준의 처우

접수: 샘물중고등학교 홈페이지

(smca.or.kr) 공고를 참고

문의: smcainfo@hanmail.net

갈라디아서 목요 오전반(OBC사역팀)

강사: 강미향 목사

일시: 9월 17일~11월 19일, 매주 목,

10:00~12:30

수강신청기간: 9월 24일까지

장소: 서빙고 믿음홀

회비: 30,000원(교재비, 수련회비 포함)

계좌번호: 하나은행/573-910006-73204/

온누리교회 갈라디아서

문의: 010-8627-2098

서빙고일대일양육자반

조건: 일대일 동반자과정수료, 온누리등록
교인, 세례교인, 순예배참석 (모두 해당되
어야 수강가능)

신청: 아이스쿨

손정훈 목사반- 마포공동체

일시: 9월 13일~1월 3일, 매주 주일, 16:00

장소: 마포복음자리

문의: 김숙경 간사(02-3215-3220)

최성석 목사반-이수공동체

일시: 9월 17일~12월 31일, 매주 목, 19:30

장소: 선교관 401호

문의: 김숙경 간사(02-3215-3220)

일본인 주부 대상 한글강좌

베이비시터 모집

일시: 9월 4일~12월 18일(매주금, 10:30~12시)

장소: 본관2층 꿈아이홀

문의: 허연지 집사(010-5072-6339)

평양노회 목사후보생 고시 안내

일시: 9월 22일(화) 오후 1시

장소: 방주교회(02-586-9191)/

서초구 방배2동 425-2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시간: 수요일 오전 10:30

장소: 양재 분당(사랑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말씀: 이상진, 문영재, 박성희 목사

문의: 유재홍 간사(570-7437)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말씀: 이상진 목사

문의: 윤상학 간사 (570-7430)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상민 팀장(010-4720-466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담당: 이정환 목사

시간: 매주 주일 오전 11:20

장소: 양재 트리니티 신축건물 304호

문의: 오탄 간사(02-570-7522)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을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희(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을(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희(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갑철청년부예배: 사랑을(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불어예배

설교: Martin Baboka(마르탱 바보카)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4336-0852, *통역 지원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 세미나

일시: 9월7일,14일,21일,10월5일,19시30분

장소: 양재 드림홀

강사: 마르탱 바보카 목사(통역지원)

문의: (010-6348-8737)

뮤지컬 찬양팀 팀원 모집

일시: 9월 6일, 13일, 20일

(주일 중 택 1일) / 오후 1시

사역시간: 주일 3부 11:30,

열린예배 찬양사역팀

장소: 비전홀B (식당옆)

준비: 자유곡 1곡

문의: 공윤택 총무(010-8870-1561)

드림씨드 교사모집

일시: 목요일 9:30~13:00, 도곡교육관

자격: 미취학 아동 영어수업 진행 가능

한 분

건반연주 가능한 분

어린이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분

성경적 영어놀이교육에 관심있는 분

문의: 박지예전도사(010-2886-3103)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다큐멘터리

<CGNTV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MK의 고백

처 / 음 / 만 / 나 / 는 / M / K / 이 / 야 / 기



선교사 자녀를 지칭하는 단어 MK(Missionary Kids)
MK들은 어떤 고민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큐멘터리 'MK의 고백'을 통해 차세대 선교 주역이 될 MK들을 만나보세요.

본방 8월 3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9월 1일(화) 오후 1시 50분
9월 3일(목) 오후 9시
9월 5일(토) 오전 10시 30분

다시보기. www.cgntv.net

세미나

이계호 교수의
《태초 먹거리》"지금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매스컴 섭외 1순위!

건강전도사 이계호 교수가 전하는
내 몸의 기본을 회복하는 원칙영과 육의 회복을 위한
태초의 가르침.

그 시간 속으로 초대합니다.

일정. 9월 2일 ~ 9월 16일 매주(수) 오후 1시 ~ 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5층 CGNTV스튜디오

회비. 무료(사전등록 필수)

등록. lucy0310@hanmail.net

문의. 02-3275-9425

TV 프로그램



▷ 2015 온누리워십

-9/5(토) 오후 7시

'하나님의 영광(Glory of God)'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5 온누리워십라이브(Onnuri Worship Live)' 콘서트입니다.
(인도 : 문영재 목사, 최성석 목사)



▷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향기

-9/3(목) 오전 11시 30분

탈북민들의 필요를 돌보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고 있는 임창호 목사(부산장대현교회)의 간증을 통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북한 선교의 방향에 대해 듣는 시간입니다.



▷ CGNTV 맞춤특강

〈나침반〉굿 리더 시리즈

-8/31(월) 오전 11시 하형록 회장 / 팀 하스 '다르게 보기'

-9/1(화) 오전 11시 이수정 대표 / 이포넷 'IT 기술로 열방을 섬기다'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able & more C&M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 간 | 편 | 성 | 표

8/30(주일)	8/31(월)	9/1(화)	9/2(수)	9/3(목)	9/4(금)	9/5(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MK의 고백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향기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사랑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햇빛 트리니티 성경강좌 - 사사시대와 우리시대 16:50 매트 캔들리의 야고보서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화 23:50 전세 프랭클린의 부흥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MK의 고백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열반인온누리교회) 16:5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임니까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자구촌교회) 20:10 건강한 교회 세미나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 콘서트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2015 한국컴패션 북한지역 서밋 23:50 데이비드 플랫의 래디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향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팀 켈러의 탕자의 비유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랑 10:2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자구촌 반사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N2)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20:10 2015 예배선교 컨퍼런 스 COUNTDOWN 주제강의 21:00 [말씀] 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패트릭의 구약 인물 열전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자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1:30 건강한 교회 세미나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15:30 맞춤특강 〈나침반〉 16:30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 19:00 2015 온누리워십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2:30 힐송 컨퍼런스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